

“협력사 성장이 LS의 경쟁력”... 상생경영 힘 실는 LS그룹

계열사별 간담회서 그룹 차원 확대 협력사 CEO들과 포럼 첫 개최 애로사항 청취하고 비전 공유

LS그룹이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S그룹은 지난 8월 경기도 안성 LS미래원에서 'LS 협력사 CEO 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요 협력사 애로사항 청취, 사업전략 및 미래비전 공유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각 계열사에서 개별로 이루어지던 소통 간담회를 이번에는 그룹 차원으로 확대 실시했다. LS명노현 사장을 비롯해 주력 계열사 CPO(최고구매책임자), 한미전선(LS전선 협력사), (주)성신산전(LS일렉트릭 협력사) 등 협력사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명 사장은 “협력사는 벤더(Vendor)가 아닌 LS의 소중한 파트너”라며, “동반성장하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고, 소통 행사를 정례화해 연 1~2회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LS그룹은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인력과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들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주요 계열사 별로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제품 개발, 판매 협력, 합작 투자 등



안성시 소재 LS미래원에서 개최된 LS 협력사 CEO 포럼에 참석한 협력사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S

을 진행하며 기술 나눔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LS전선은 최근 네트워크 제품 전문 제조업체인 강원전자와 랜 케이블 테스트 기기를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다. 이 테스트 단말기에 케이블을 삽입하면 합선이나 배선 오류 등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고, 이상 여부를 LED를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셀프 테스트 및 원격리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전원 스위치 없이 단말기가 작동할 때만 전원이 공급되도록 해 배터리 수명을 늘렸다.

LS일렉트릭은 2020년부터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협력재단)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LS일렉트릭은 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 30억 원을 출연하고, 국내 중소기업 64곳을 대상으로 ▲솔루션 공급기업 풀(Pool) 구성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 플랫폼인 테크스퀘어(Tech Square) 기반 제조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공급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LS MnM은 주력 제품인 전기동 생산 과정 중 제련 및 황산공장에서 발생하는 열(증기)을 온산공단 내 일부 기업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친환경 경영으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제련 공정 중 발생하는 열(증기)의 양은 연간 약 140만톤, 그 중 약 70만톤은 공장 내 열(증기) 및 전기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70만톤은 열(증기)로 재가공해 인근에 위치한 에쓰오일, 한국제지 등에 공급을 하고 있다.

LS엠트론은 국내 중소 작업기 생산업체 웅진기계와 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LS엠트론은 지난 6월 LS엠트론 전주공장에서 웅진기계와 트랙터 작업기 생산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설립되는 합작법인의 이름은 '랜드솔루션(LAND SOLUTIONS)'으로 농업의 모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랜드솔루션은 김제 자유무역지역 내 15,500평 규모의 부지에 연 2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작업기 생산 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LS엠트론은 트랙터 분체 판매 확대는 물론 작업기 공급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 트랙터 사업 성장에 중요한 초석을 다지게 됐고, 웅진기계는 그동안 쌓아온 작업기의 제조 및 생산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 성장과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LPG 전문기업 E1은 1996년부터 올해까지 27년 연속으로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을 이루며 상생과 화합의 미래지향적 노경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회사 고객인 LPG충전소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 교육팀을 운영하며 컨설팅 및 순회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충전소 경영인 대상으로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대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논란 많은 게임위, 간담회 열고 개선안 발표

불공정 규정·전산망 비리 등 의혹 10일 수습 차원 기자간담회 개최 소통 방안 발표, 질의응답 등 진행

게임위가 최근 논란을 빚었던 불공정 심의 규정, 사후관리,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입을 연다.

게임위는 넥슨의 '블루아카이브'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등급을 15세 이상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상향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을 산바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오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규철 게임위원장이 직접 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

사원에 게임위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 서명에 동참한 게이머들은 5800여 명에 달한다. 해당 화살은 게임위에게 쏘였다.

게임위는 이같은 상황을 수습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38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전산망에 오류가 생기는 등의 허점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게임위는 개발업체에 해당 문제에 대해 추후 언급이 없자 비위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난달 넥슨의 블루아카이브,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 모바일 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연령 등급 재분류를 청소년 이용불가로 통보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앞서 문제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게임위 폐지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아울러 회의록 비공개와 채용과정 비리 등으로 게임위의 전문성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심의 규정부터 사후 관리, 감독 체계까지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이용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임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용자들은 지난달 초 국민동원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게임위의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라'는 청원을 접수했고 이후 5만 명이 서명하며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다.

/최빛나 기자 vitna@

기아, 진로고민 청소년 위해 멘토로 나선다

진로상담 프로그램 '진로쌤' 선배

기아가 청소년 대상 미래 진로 탐색과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진로상담 프로그램 '진로쌤'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사단법인드림커넥트가 주관하고 기아가 후원하는 진로쌤은 기아 청소년 진로

교육 사회 공헌 활동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의 4번째 프로그램이다. 인스파이어링 클래스는 진로 체험 기회와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진로쌤은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진로쌤 채널을 통해 전국 진로 진학상담교

사연합회의 교사들과 진로와 관련된 1:1 전화·문자 상담을 제공해 준다. 또한 교육부 커리어넷과 정보를 연동해 진학 정보, 대입전형, 대외활동, 미래직업, 진로·학습 고민 등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챗봇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진로쌤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카카오톡에서 '드림커넥트 진로쌤'을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하면 진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코스닥 시장 상장기념식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김영부 큐알티 대표이사, 강성범 미래에셋증권 부사장, 유도석 한국IR협회 상무.

/한국거래소

'반도체 개발칩 분석' 큐알티, 코스닥 입성

채용 확대... 글로벌 공략 박차

큐알티가 코스닥에 상장됐다.

큐알티는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상장 기념식을 진행했다.

큐알티는 국내 유일 반도체 개발칩 신뢰성 시험 및 종합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4년 설립해 국내 최초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반도체 신뢰성 시험 규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반도체 장비 제조사, 종합반도체기업(IDM), 팹리스, 파운드리 등 관련 분야 내 약 1500개의 국내외 우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신뢰성 시험은 반도체가 고온다습한 조건이나 물리적 충격 등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큐알티는 불량 원인을 파악하는 종합분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비 개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세계 최초 '소프트웨어 검

출상용화장비' 및 '5G 지능형 수명평가 장비'를 국책과제로 개발 중에 있다.

반도체가 최근 자율주행 등 신산업에도 활용되면서 신뢰성 시험 및 평가 장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적에서도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도 매출액은 약 705억 원, 영업이익은 약 18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반기 매출액은 약 304억 원, 영업이익은 약 82억 원으로 기록됐다. 영업이익률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만 26.9%를 달성했다.

큐알티는 공모자금을 활용해 연구개발 인력을 증원하고, 기술평가 부문 장비를 추가 확보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부 큐알티 대표는 “큐알티는 지속 성장 경영에 중점을 두고, 기술력 고도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주주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